

격 려 사

한 점의 불씨도 모으면 쇠나 돌을
녹일 수 있고, 한 가닥의 터럭도
여러 가닥을 합치면 천근의 무게도
끌 수 있으니, 이는 다 합하고 뭉친
까닭입니다.

처음 작은 불씨만 보고서야 어찌
쇠와 돌을 녹일 수 있다고 생각할 것
이며, 터럭 한 가닥만 보고서야 어찌
그것이 무거운 물건을 끌 수 있으리라
생각하겠습니까.

**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들이라도
뭉치고 보면 그 힘이 불가사의하게
늘어나서 쉽게 녹이고 쉽게 끌 수
있게 되는 법입니다. 더욱이 지혜를
가진 사람의 뭉친 힘으로야 무엇을
이루려 한들 이루지 못하겠습니까.**

**저는 오늘 수좌스님들의 놀라운 힘을
보았습니다. 전국의 선원 수좌스님들
께서 이렇듯 단결하고 화합하여 제방
선원에서 시행하고자 할 목적으로
『선원청규』를 편찬하셨다니, 그 원력과
지혜로움에 경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.**

지계의 바탕 없이 오로지 깨달음만을 구하는 것은 한 잔의 물에서 용을 낚고, 개미집에서 호랑이를 찾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. 불도를 성취하는데 있어서 청정한 생활은 수행자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. 또한 이는 산중에 사는 스님들만의 몫은 아닐 터, 포교일선에 계신 스님들에게도 훌륭한 일상생활의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.

지난 4년 동안 깊은 원력으로 지혜를 모아주신 제방선원의 수좌스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.

**부디 지난날 『선원청규』의 제정을
위해 걸어오셨던 굳은 확신과 원력이
실천수행을 통해 빛을 발할 수 있기를
기원합니다. 그리하여 조계종문에
선풍이 진작되고 수행가풍이 되살아
나길 간절히 염원하는 바입니다.**

**한국불교와 조계종단에 대한 깊은
애정으로 『선원청규』 편찬사업에 물심
양면으로 애써주신 선원청규편찬위원회
스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
말씀을 드립니다.**

**불기 2554년 11월 10일
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**